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막판 총력전

### 김관영 도지사,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들 찾아 설득 나서 여야 핵심인사들도 만나 필요성·추진 방향 등 설명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 심사 관련 상임위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위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김 지사의 특별자치도 관련 15번째 건의활동으로 11월 상임위 처리 실현이 목표다.



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해 여야 협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 발의안은 총 42개 조항으로 전 분야 특례를 총 망라해 정부지원을 극대화하는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은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28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와 투자 관

련 조문으로 구성돼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설계됐다.

김 지사는 이번 활동에서 여야 핵심인사를 만나 전북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전북의 청사진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면서 설득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채만금 기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들고 "3특 중 제주, 강원도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도 시급히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21일 주간공청회 및 법안소위에 상정해 출결"을 요청했다. /김경수 기자

라해 정부지원을 극대화하는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은 28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와 투자 관

### '수능 마친 수험생의 퍼포먼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 도내 수험생 1만7100명 대입 수능 치뤘

고3 재학생 1만3378 · 졸업생 3298 · 검정고시 합격자 등 424명  
수능 응시율 상승, 정시 확대 · 전북대 수능 최저기준 하향치 원인  
작년 도입 문 · 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져... 내달 9일 성적표 발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70개 시험장에서 무난히 치러졌다.

다만 정읍·익산지구에서 반입금지 물품인 노트북·휴대전화 사용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일도 있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러지는 세 번째 시험이며, 확진 수험생들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도내 응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1만7,100명으로 이 중 고3 수험생이 1만3,378명으로 지난해보다 48명 늘었다. 반면에, 졸업생은 3,298명으로 273명이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424명으로 30명이 각각 줄었다.

여자는 8,528명으로 이는 전년보다도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수능 응시율이 높아진 이유는 정시 확대와 전북대 수능 최저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시자 수는 2,092명을 기록했다.

올해 치러진 수능의 특이 사항으로는 전북지역의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180명이 감소했다는 것. 고3 재학생은 학생 수 감소로 488명이 감소했으나, 졸업생이 오히려 273명 증가했다. 이어 정시 수능전형 확대 등으로 정시전형 합격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졸업생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검정고시생은 2019년 208명에서 2023년 42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전국 대비 전북지역의 수험생 비율

은 3.4%로 17개 시도 중 8위다. 이와 함께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어와 수학 영역에 선택과목이 추가되고, 사회·과학탐구는 17개 선택과목을 원하는 대로 최대 2개씩 골라서 풀었다.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을, 선택과목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또 수학은 '수학Ⅰ·Ⅱ'에 비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했다.

특히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치러야 한다.

한편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오는 21일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22~29일까지 심사가 이뤄진다.

성적표는 오는 12월 9일 발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도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갈수록 늘어

## "생활방역수칙 준수 · 백신 추가 접종 동참을"

### 전북도,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 따라 건강관리 주의 당부 도내 백신 접종률만으로 감염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역부족 도, 확진자 발생 대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618곳 지속 운영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어 도민들의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일 발생현황도 지난 14일 2,049명, 15일 2,246명으로 지난 9월 14일(2,748명)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2,000 명대로 진입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지속적으로 1.0 이상을 유지되고 있어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했다.

전북도는 감염병 재유행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2가 백신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절기 추가접종 실시로 항체 형성률을 증가시켜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16일 현재까지 도민(178만명) 중 기초접종 159만명, 동절기 접종 10만5,000명이 접종을 완료해 기초접종률 88.5%, 동절기 접종률 5.9%로 전국 접종률을 상회하고 있고,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 중 15.2%가 접종에 참여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유행 정점 예측 시기인 12월경 감염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접종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와 시군은 접종률 제고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갖고 다양한 제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동절기 재유행에 따른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기존 전담 병원 등에 병상 추가 확충 검토를 요청하였고, 기존 방문하던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이 가능한 자율입원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토록 시군과 함께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 치료자를 위한 신속한 검사·진료·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618개소를 지속 운영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절기 재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도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백신 접종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